

## 상상의 정치: 웨더맨의 형성

안효상 (서울대 강사, 서양사)

### 1. 머리말

1848년 혁명을 제외하면 “유일한 세계 혁명”이라고 불리는 1968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5월의 파리이다. 그것은 아마도 60년대 혹은 68년이 상징하는 모든 것이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여기서 격렬하게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 5월의 파리는 학생들의 저항이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전이되어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변화 및 사회적 변화에 선행하거나 나란히 진행되는 문화적 변화의 중요성을 과시했다. 또한 5월의 파리는 자율이라는 60년대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었던 사례이기도 했다.

이에 비해 미국의 68년은 폭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마틴 루터 킹 2세와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 8월의 시카고 시위에 대한 경찰의 야만적인 공격 등이 그런 이미지의 원천일 것이다. 이런 (체제의) 폭력은 날로 악화되어 가는 베트남 전쟁과 더불어 운동 주체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아니라 체제의 부동성을 각인시켰다. 따라서 분노와 좌절이 68년의 색조였다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진적 변화를 추구했던 운동 세력은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하나는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이론적 추구로, 이때 맑스주의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하나는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무장 투쟁”을 추구한다. 이런 노선을 추구한 대표적인 집단이 웨더맨이다.<sup>1)</sup>

1969년 상반기에 SDS 내의 한 경향 혹은 분파로 시작된 웨더맨은 1969년 6월에 있었던 SDS 전국 대회에서 경쟁 분파인 마오주의 경향의 PL(진보 노동당) 집단을 축출하고 SDS의 지도권을 장악했다. 이를 기반으로 그 해 10월에 “제국주의 모국”을 내부로부터 공격하는 가두 투쟁인 “분노의 나날”을 조직하면서 자신들의 노선을 구현하려 했다. 그리고 그 해 12월 말에 미시건 주 플린트에서 열린 “전쟁 평의회”를 통해 지하화를 결정하였고, 이후 비밀 지하 조직에 기초한 무장 투쟁을 전개한다.

SDS의 이러한 변화로 볼 때 미국의 60년대를 운동 양상에 따라 둘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둘로 나눌 때, SDS 의장이었던 하버드 출신의 토드 기틀린 식의 “좋은 60년대/ 나쁜 60년대”라는 구분법도 그리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이런 구분법에 따르면 60년대 초의 운동은 인간적이고, 양식이 있고, 따라서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1)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로는 다음을 보라. 이주영, 「1960년대 미국 학생운동의 마르크스주의화 과정: 신좌파의 구좌파로의 후퇴 과정」, 『미국사연구』 제9집(1999), 251-273쪽.

이에 반해 60년대 후반의 운동은 부정하고,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인 경향이 있다.<sup>2)</sup> 이렇게 「포트 휴런 선언」의 SDS와 초기 민권 운동을 특권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60년대의 나머지 운동을 평가하는 이런 관점은 그 관점 자체의 문제를 떠나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사회 운동은 외부 상황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자기 실천에 대한 반성 속에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현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특정 시기 (비록 그것이 출범 시기라 할지라도)를 특권화하는 것은 그 운동 전체에 대한 몰이해를 낳을 수 있다. 두 번째로 SDS 혹은 신좌파의 출현의 시기를 주요한 준거점을 삼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기틀린과 같은 관점은 SDS를 비롯한 60년대의 백인 학생 운동이 민권 운동 및 제3세계 민족 해방 운동의 충격 속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운동 자체를 거시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이 글은 오늘날 저주 받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SDS/ 웨더맨의 형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60년대 신좌파 운동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웨더맨을 형성하는 운동 주체들의 세계 이해와 자기 이해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60년대 후반의 운동 상황을 좀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50년대에 시작되어 70년대까지 이어지는 ‘장기 60년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2. 인종주의와 전쟁

신좌파의 탄생을 알린 문서라 할 수 있는 「포트 휴런 선언」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신좌파는 “최소한 적당히 편안하게 양육되었지만” “살고 있는 세계를 불편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 이유는 이 신좌파 세대가 자라면서 이들의 “편안함에 떨쳐 버릴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사건들이 끼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인종적 완고함에 맞서는 남부의 투쟁으로, 이를 통해 이들 대부분은 침묵을 깨고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sup>3)</sup> 이렇게 흑인 민권 운동이 영향 하에 출발한 신좌파 운동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흑인 운동에 반응하면서 전개된다.

신좌파 운동의 탄생을 영향을 미친 민권 운동의 목표였던 공공장소에서의 인종 차별 철폐와 참정권의 획득은 민권법(1964년)과 투표권법(1965년)으로 각각 획득된다. 이로써 통합을 기치로 내건 민권 운동의 자유주의적 의제는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권법이 만들어진 닷새 후에 발생한 와츠 폭동은 인종 문제가 법적 정비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렬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흑인의 처지에 대한 반응이 블랙 파워 운동이었다. 1966년 6월에 일어난 메레디스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항의 행진 중에 나온 블랙 파워는 흑인들의 분노, 불만, 환멸을 표현했으며, 피억압자인 흑인들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주장이었다.

이 시기 블랙 파워의 주창자인 SNCC의 스토클리 카마이클에 따르면 빈곤과 검은 피부색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흑인들은 미국 내의 식민지민이다. 소수의 유력자들은 이 식민지를 비롯해 “미시시피와 할렘에서 남아메리카, 중동, 남아프리카, 베트남까지” 펼쳐져 있는 미국의 모든 식민지를 착취하고 있다. 이러할 때 인종주의는 이러한 착취를 은폐하

2) Todd Gitlin, *The Sixties: Years of Hope, Days of Rage* (1987).

3) “Port Huron Statement”, [www.sds.revolt.org](http://www.sds.revolt.org)

고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인종주의를 없애기 위해, 미국이 완전히 새롭게 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sup>4)</sup>

이렇게 흑인의 처지에 대한 반식민주의적 분석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흑인들이 백인과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조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흑인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혁명적 생각은 흑인만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백인들은 이런 심리적인 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백인 우월주의를 조장한다”.

다른 하나는 백인 지지자들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종주의가 존재하는 백인들의 공동체로 가서 인종주의를 없애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주의를 제거하려는 백인 활동가들의 활동이 백인 공동체 내부에서 벌어질 때에만 가난한 흑인과 가난한 백인 사이의 실질적인 동맹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블랙 파워의 발흥에 대해 SDS는 즉각적인 지지를 보냈다. SDS의 결의문에 따르면 SDS는 SNCC의 새로운 방향을 “환영하고” “지지했다”. 또한 이들이 보기에 블랙 파워는 “사회 변화를 위한 전략이자 조직 양식”이었다. 미국이 “본질적으로 인종주의 문화”라고 할 때 이러한 전략과 양식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결의문은 블랙 파워에 대한 이러저러한 비판을 반비판하면서 “흑인 의식”을 장려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SNCC의 태도 또한 지지한다고 말한다.<sup>5)</sup>

이렇게 체제 자체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은 베트남 전쟁의 확대 속에서 이미 제기되기 시작했다. 1965년 2월 존슨은 롤링 선더 작전을 승인함으로써, 최초로 북베트남에 대한 체계적인 폭격을 개시했다. 이 때문에 이 해 4월에 워싱턴 시에서 열린 반전 집회는 2만 명 이상이 모인 큰 시위가 되었다.

이 집회에서 SDS 의장인 폴 포터가 한 연설은 민권 투쟁의 전개 및 베트남 전쟁의 확대 속에서 SDS의 세계 인식이 「포트 휴런 선언」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폴 포터는 베트남 전쟁이 잘못된 정책 혹은 잘못된 지도부 탓이 아니라고 한다. 존슨 대통령이나 딘 러스크 국무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 장관 모두 특별히 악한이 아니지만 “이들의 결정은 수많은 사람들은 불구로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말한 그는 이렇게 다음과 질문한다.

미국이...베트남 인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 이들을 무정하게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떤 체제인가? 남부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참정권을 박탈하고,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빈곤에 빠뜨리고, 미국 사회의 주류 및 약속에서 배제하고, 역명의 끔찍한 관료제를 만들어내고...일관되게 물질적 가치를 인간적 가치보다 앞에 놓는 체제는 어떤 체제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 다음 포터는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이 체제에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체제에 이름을 붙이고, 서술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제가 변화될 때에만 베트남에서 전쟁을 일으킨 힘을 막을 수 있고, 남부에서 벌어지는 살인을 자행하는 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 Stokeley Carmichael, “What We Want” (1966), in Albert and Albert, *The Sixties Papers: Document of a Rebellious Decade*, (1984).

5) SDS, “Resolution On SNCC” (June, 18, 1966), [www.content.cdlib.org](http://www.content.cdlib.org)

다음으로 포터는 이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대중적 사회 운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사회 운동은 “우리의 문제가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우주나 대양의 심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곳 미국 내에 있다는 것을 이 나라가 이해할 수 있게 할 정도로 강력한 노력”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베트남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인간의 삶과 창의성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6)</sup>

폴 포터가 이름을 붙이고, 분석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한 체제에 대해 먼저 이름을 붙인 사람은 포터 다음으로 SDS 의장이 된 칼 오글즈비이다. 그는 1965년 11월에 있었던 워싱턴 반전 시위에서 이 체제를 “조합적 자유주의” corporate liberalism이라고 명명한다. 그가 보기에 베트남 전쟁뿐만 아니라 1953년 이란의 모사데그 전복부터 1965년의 도미니카 공화국 침공까지 미국이 개입한 쿠데타나 군사 작전은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지만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적 민주주의를 억압한 것이었다.<sup>7)</sup>

이런 인식의 변화는 이후 베트남 전쟁이 더욱 확대되면서 심화, 변형된다. 1966년 초에 베트남 주둔 미군은 20만이 안 되었지만, 1967년 중반에는 두 배가 넘는 45만이, 1967년 말에는 50만이 파병되었다. 그리고 미군이 북베트남에 투하한 폭탄은 1966년에 13만 톤이 넘었고, 그 다음해에는 22만 톤이 넘었다. 미군의 작전은 남베트남 내에서도 확대되어 이 두 해 동안 투하한 폭탄은 백만 톤 이상이었다.<sup>8)</sup>

블랙 파워의 제기 및 베트남 전쟁의 확대는 SDS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우선 신좌파는 자신들이 반대하고 저항하는 체제의 성격을 좀 더 깊이 있게 인식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면서 신좌파 담론 내에 “백인 권력 구조”와 “백인 급진파”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영향 하에서 신좌파는 전통적인 계급 담론에서 벗어나 반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흑인 투쟁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블랙 파워를 미국이 이끌고 있는 서방에 맞서는 전 세계 유색인의 투쟁의 일부로 보면서 흑인 투쟁과 미국이라는 체제를 국제주의적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해방 투쟁은 프란츠 파농이 주장했듯이 혁명적 폭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 3. 분노의 나날

1967년부터 “체제”와 “운동”의 대립은 격화되었고, 흑인 운동과 신좌파 운동 모두 급진화의 국면 속에서 1968년을 맞이했다. 그 1968년은 구정 공세와 함께 시작되었다. 북베트남 군과 NLF는 구정과 함께 남베트남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와 마을에 대한 동시 공격을 개시했다. 이에 대해 유명한 앵커맨인 월터 크론카이트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가들에게 구정 공세는 미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내의 상황도 이런 인식을 부추겼다. 그해 4월에 마틴 루터 킹 2세가 암살당했고,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킹이 죽고 난 이틀 후에는 블랙 팬더의 보비 허튼이 경찰에 살해당했다.<sup>9)</sup>

6) “Paul Potter's Speech” (April 17, 1965), [www.sds.revolt.org](http://www.sds.revolt.org)

7) Carl Oglesby, “Let Us Shape the Future” (November 27, 1965), [www.sds.revolt.org](http://www.sds.revolt.org)

8) George C. Herring, *America's Longest War* (1996), pp. 161-162, 168.

9) Elaine Brown, *A Taste of Power: A Black Woman's Story* (1992), p. 188

이런 상황에서 신좌파 운동의 또 다른 분기점인 컬럼비아 학생 반란이 일어났다. 4월 23일 해밀튼 홀을 점거하면서 시작해서 모두 다섯 개의 건물을 점거해서 닷새 동안 벌어진 컬럼비아 학생 반란의 주요 쟁점은 베트남 전쟁과 인종주의였다. 학생들은 3월부터 반혁명 연구를 하는 국방 분석 연구소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할렘 지역에 인종차별적인 체육관을 건설하는 것에도 학생들은 반대했다.<sup>10)</sup>

대학을 점거한 학생들은 체육관 건설 중지, 국방 분석 연구소와의 관계 단절, 시위 관련 학생에 대한 징계 철회 등 6개 항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 당국은 학생들의 이런 요구를 전혀 듣지 않고, 경찰을 불러 들여 강제 해산에 나섰고,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 속에 700명 이상이 체포되면서 컬럼비아 학생 반란은 일단 막을 내렸다.

하지만 컬럼비아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75개 대학 캠퍼스가 파업에 들어갔고, 쟁점은 모두 전쟁과 인종주의였다. 톰 헤이든의 말처럼 “두 개의 컬럼비아, 세 개의 컬럼비아, 수많은 컬럼비아”가 만들어진 것이다.<sup>11)</sup> 또한 컬럼비아는 SDS가 사회의 권력 작동 방식과 운동의 목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하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신좌파에게 분기점이었다. SDS 활동가들은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무자비한 권력과 대립”하였던 것이다.<sup>12)</sup>

컬럼비아 학생 반란이 마틴 루터 킹 2세의 죽음 이후에 벌어졌다면, 시카고 시위 및 “경찰의 폭동”은 6월 초에 있었던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과 닿아 있었다. 반전 운동 및 반전 감정의 확산 속에서 연초에 린든 존슨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신좌파를 비롯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기성 정치에 대한 압력이 작용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평화주의 후보로 나선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은 이런 기대감을 거의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러한 상실감은 1968년 8월에 민주당 전당 대회가 열린 시카고에서 더욱 커졌다. 그것은 이 전당 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험프리를 선출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와 함께 시카고 시장 리처드 데일리가 지휘하는 시카고 경찰은 시위대에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다.<sup>13)</sup> 신좌파는 시카고 사태를 우연으로 보지 않았다. 텔레비전 카메라 바로 앞에서 시위대에 곤봉을 마구 휘둘러 유혈이 난무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 기자까지 공격하는 모습 속에서 신좌파는 기성 질서 내에 새로운 강경파가 대두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던 것이다.<sup>14)</sup>

이런 판단은 1967년부터 신좌파를 비롯한 사회 운동에 대한 탄압이 강화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 운동에 대한 탄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긴 했지만, 주도적인 기관은 코인텔프로(대항정보프로그램)를 운영한 FBI였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FBI는 침투, 심리전, 법 체계를 통한 괴롭힘, 불법적인 폭력 등의 방법으로 사회 운동을 “폭로, 파열, 오도, 불신, 혹은 중립화[무력화]”시키려 했다.<sup>15)</sup>

코인텔프로의 일차적인 대상은 흑인 해방 운동이었다. 코인텔프로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 유도 여기에 있었다. 대상이 되는 조직은 SNCC, SCLC, CORE 등이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에드거 후버는 블랙 팬더당을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선언하였다. 그

10) 컬럼비아 학생 반란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강정석, 「1968년 컬럼비아대학반란 연구」(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2000)가 있다.

11) Tom Hayden, “Two, Three, Many Columbias”, in Immanuel Wallerstein and Paul Starr (eds.), *The University Crisis Reader, Vol. 2: Confrontation and Counterattack* (1971).

12) David Gilbert, *No Surrender* (2004), p. 25.

13) Sale, *SDS*, pp. 472-477.

14) George Katsiaficas, *The Imagination of the New Left: A Global Analysis of 1968* (1987), p. 80.

15) Churchill and Vander Wall, *The COINTELPRO Papers* (1990), pp. 92-93.

래서인지 코인텔프로 연구자인 워드 처칠에 따르면 1968년에서 1976년 사이에 최소한 27명의 블랙 팬더 활동가가 살해당했다.<sup>16)</sup>

그렇다고 백인 신좌파 운동도 예외가 아니었다. 코인텔프로가 시작된 지 일 년이 채 되지 않은 1968년 5월부터 신좌파에 대한 공작에 들어간 FBI는 7월이 되면 “가능하면 SDS 내의 적대...그리고 진보노동당 내의 적대가...이용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sup>17)</sup>

이런 상황 속에서 1968년 하반기가 되면서 신좌파 운동의 대표자인 SDS는 더욱 급진화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급진화는 내부 논쟁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미국 사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누가 혁명의 전위인지, 어떤 조직 형태와 전술을 채택할 것인지 등등이 내부 논쟁의 쟁점이었다.

당시 SDS 내에는 마오주의 경향의 진보노동당(PL)이라는 분파가 있었다. 이들은 SDS를 일종의 근거지로 삼아 좌파의 세력을 확대하려는 맑스레닌주의 분파로서, 능숙한 정치 수완을 발휘했기 때문에 숫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대하는 정치 블록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혁명적 청년 운동(RYM)이었다. 이 집단의 명칭은 1968년 12월에 있었던 SDS 대회에서 통과된 결의문 제목에서 온 것이었다. 마이크 클론스키가 제출한 이 결의문은 반인종주의를 백인 청년 운동의 정치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흑인 투쟁 및 기타 제3세계의 투쟁과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PL의 노동자-학생 동맹과 비교되는 것이었다. PL이 보기에 생산의 지점에 위치한 노동자 계급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인종은 일종의 혼동이었다. 이에 반해 RYM은 “흑인 해방을 위한 이러한 투쟁은 인종주의와 인종주의적 제국주의 권력 구조에 반대하는 반식민 투쟁이자 계급 투쟁의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흑인 노동자들은 가장 억압받는 층에 속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sup>18)</sup>

이런 이론적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쟁점은 민족주의를 둘러싼 것이었다. PL은 계급 중심적 관점에서 “모든 민족주의는 반동적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블랙 팬더를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SDS 내의 다수는 블랙 팬더를 신좌파 운동의 영감의 원천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혁명적인 세력으로 보고 있었다. 게다가 문제는 1968년 11월 이후 블랙 팬더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블랙 팬더를 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두 분파 사이의 논쟁은 SDS 대회에서 「혁명적 청년 운동을 향하여」 외에 PL이 제출한 「인종주의와 싸우자」가 함께 통과되면서 결판이 나지 않았다. 이 논쟁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고, ‘웨더맨’이라는 무장 투쟁 집단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69년 6월에 열린 SDS 대회에서였다.

6월 대회를 앞둔 봄에 느슨한 반PL 동맹인 RYM은 RYM I 과 RYM II로 나뉘어졌다. 행동주의적인 접근법을 강조하는 RYM I 가 이후 웨더맨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RYM II는 맑스주의에 대해 좀 더 전통적인 태도를 지닌 집단이었다. 이런 분열 속에서 나중에 웨더맨과 동의어가 되는 사람들, 즉 빌 에이어스, 마크 러드, 버나딘 돈, 짐 멜런, 테리 로빈스, 존 제이콥스, 제프 존스 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자신들의 입장을 가다듬는 토론을 하였고, 이것은 이후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기 위해 일기예보자가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글이

16) Ward Churchill, “To Disrupt, Discredit and Destroy,” in K. Cleaver and G. Katsiaficas (eds.), *Liberation, Imagination, and the Black Panther Party* (2001), p. 109.

17) Churchill and Vander Wall, *The COINTELPRO*, pp. 183-184.

18) Mike Klonsky, “Toward a Revolutionary Youth Movement” (*New Left Notes*, December 23, 1968), in Immanuel Wallerstein and Paul Starr (eds.), *The University Crisis Reader, Vol. 2*.

되었다. 이 글이 발표된 것은 1969년 6월 18일자 『뉴레프트노트』였는데, 바로 이 날이 SDS 전국 대회가 개막하는 날이었다.

전국 대회는 6월 21일 밤까지 진행되면서, 웨더맨/ RYMII와 PL 사이의 논쟁과 암투로 점철되었다. 또한 여기에 블랙 팬더가 참가하여 PL을 “반혁명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웨더맨에게 행동으로 뭔가를 보이라고 촉구하면서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21일 밤에 웨더맨 분과가 도열한 가운데 스스로를 “혁명적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바 있는 버나딘 돈이 PL을 SDS에서 축출한다는 결정을 발표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SDS의 주요 간부직을 RYMII의 마이크 클론스키 이외에는 모두 웨더맨 분과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PL 축출 결의안과 가을에 시카고에서 저항 주간을 가진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웨더맨의 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일기예보자가 필요하지 않다」가 사실 상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한 투쟁은 미 제국주의와 거기에 맞서는 민족 해방 투쟁이다”라고 말하는 이 선언문은 미국 내의 흑인들의 투쟁을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의 선두에 놓고 있다. 웨더맨에 따르면 흑인들은 “역사적으로 노예라는 공통의 지위에 근거”한 “내부 식민지”인데, 이 식민지가 제국주의의 생존에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국제적인 투쟁에서 흑인들의 투쟁을 비롯한 모든 식민지의 자결권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럴 경우 제국주의가 위기가 빠지면서 혁명적 상황이 도래할 것이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의 조직을 혁명 세력을 전환해야 한다. 물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전 세계의 반제국주의 세력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웨더맨이 보기에 미국의 백인 노동자 계급은 자신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종주의적인 태도에 빠져 있어서, 반제국주의라는 대의의 적이였다. 이러한 때 유일한 희망은 「혁명적 청년 운동을 향하여」에서 밝힌 바 있듯이 청년층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운동의 중심을 “학생 엘리트의 근거지에서 좀 더 억압받고 있는 청년층”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한다.<sup>19)</sup>

흑인의 위상에 대한 웨더맨의 이러한 관점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찍이 W. E. B. 두보이즈가 「전쟁의 아프리카적 뿌리」(1915년)나 『흑인의 재건』(1935년)에서 주장한 바 있으며, 이들과 동시대에는 말콤 X가 말했던 것이다. 또한 블랙 파워의 등장 속에서 백인들의 과제는 백인 사회 내에서 백인들을 반인종주의적 의식과 활동으로 조직하는 것이라는 점도 제기되었다. 다만 이들에게 새로운 것은 이러한 과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백인 청년층의 조직화 및 이를 위한 운동의 재편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실천이 다른 사회 운동, 특히 흑인 운동과 어떻게 조응하는가라는 것이다.

당시 웨더맨이 일종의 혁명적 순수성을 가지고 당장 새로운 실천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들의 정세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빌 에이어스가 10월의 시카고 투쟁을 앞두고 쓴 글에 따르면 베트남 및 흑인 공동체 내에서 학살이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인의 저항으로 볼 때 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혁명적 정세라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태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행동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한다.<sup>20)</sup>

19) Karin Asbley, et al., “You Don't Need a Weatherman To Know Which Way the Wind Blows” (*New Left Notes*, June 18, 1969), in Harold Jacobs (ed.), *Weatherman* (1970), pp. 51-90.

20) Bill Ayers, “A Strategy To Win” (*New Left Notes*, September 12, 1969) in Harold Jacobs (ed.),

사실 이러한 인식은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순진한 이해에 기반한 것이었다. 하지만 60년대 내내 신좌파 운동이 지녔던 낙관주의를 감안하면 아주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다. 이러한 낙관주의와 함께 지속되는 전쟁 및 흑인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표현되는 기성 질서의 부동성에 대한 분노가 10월의 시카고 저항 운동의 정서적 근거였다.

PL을 축출한 6월 대회 이후 웨더맨이 장악한 SDS는 10월에 있을 전국 행동이라는 투쟁을 준비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투쟁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제적인 계급 전쟁의 또 다른 전선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전쟁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또한 이 투쟁을 통해 웨더맨이라는 전위 조직을 건설하고, 혁명적 청년 운동을 건설하는 것도 전략적 목표였다.<sup>21)</sup>

그렇지만 체계바라 1주기인 1969년 10월 8일부터 나흘 간 계속된 전국 행동은 정치적으로 볼 때 명백히 실패였다. 우선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일 것이라는 SDS/ 웨더맨의 계획과 달리 천 명이 안 되는 시위대가 모였을 뿐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블랙 팬더를 비롯한 다른 운동 조직이 웨더맨의 계획을 “모험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행동의 양상 또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들은 “모국 내에 혼란”을 만들기 위해 도심 상점가를 말 그대로 부수고 다니고,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300명 가까운 숫자가 체포되었고, 이들을 위한 보석금만도 100만 달러가 넘게 들었다. 또한 부상당한 경찰이 57명이었고, 웨더맨의 주장에 따르면 100만 달러에 달하는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sup>22)</sup>

“분노의 나날”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SDS의 전국 행동은 웨더맨 분파의 엘리트주의적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로서는 이를 통해 흑인 투쟁과 베트남인을 비롯한 제3세계 민족 해방 투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바란 것은 이런 식의 투쟁이 아니었다. 전국 행동이 벌어지기 몇 달 전인 1969년 7월에 몇몇 웨더맨 조직원들은 아바나에서 북베트남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북베트남인들이 미국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베트남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알리고, 이를 통해 광범위한 연대를 추구하라는 것이었다.<sup>23)</sup> 하지만 웨더맨 분파의 전국 행동은 이러한 요청에 대한 주관적, 상상적 해석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요청을 거부한 셈이었다.

SDS/ 웨더맨의 전국 행동의 정치적 실패는 “분노의 나날” 나흘 뒤에 열린 반전 시위인 모라토리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만 이상의 사람이 모여 최대의 반전 시위가 된 이 모라토리엄을 주도한 것은 반전 운동 내의 자유주의적 경향의 사람들이었고, 당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급진적이었던 SDS는 웨더맨 정치가 주도하면서 이 운동에서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한 달 후인 11월 15일에 벌어진 반전 시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4. 바람은 어디로 부는가?

제3자가 보기에는 “분노의 나날”이라는 전국 행동은 분명한 실패였다. 하지만, 웨더맨은 전

---

*Weatherman* (1970), p. 186.

21) Motor City SDS, “Break On Through To The Other Side” (*New Left Notes*, August 23, 1969) in Jacobs (ed.), *Weatherman*, p. 152; Bill Ayers, “A Strategy To Win”, *Weatherman*, p. 187; SDS, “Bring the War Home!”, Univ. of Washington Libraries.

22) Jeremy Varon, *Bring the War Home: The Weather Underground, the Red Army Faction, and Revolutionary Violence of the Sixties and Seventies* (2004), p. 82.

23) David Barber, *A Hard Rain Fell: SDS and Why It Failed* (2008), pp. 178-179.



국 행동이 끝난 후 곧바로 승리를 선언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물질적 손실”을 입힌 것 이외에도 웨더맨 조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나섬으로써 다른 백인 급진주의자들이 유사한 행동을 하도록 자극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전국 행동 속에서 간부 대오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sup>24)</sup>

이러한 평가로 볼 때 웨더맨은 전국 행동을 대중 행동보다는 조직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평가는 신좌파 언론인인 앤드류 콕카인드나 당시 알제리에 망명 중이었던 블랙 팬더의 엘드리지 클레버에게서도 나왔다. 콕카인드는 전국 행동이 “급진파에게 혁명가가 되라는” 요구라고 보았으며, 클레버는 폭력 혁명을 통해 미국 사회를 전복해야 한다는 웨더맨에 지지를 보냈다.<sup>25)</sup>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흑인 운동이나 신좌파 대부분은 웨더맨의 행동에서 대해 각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비판을 쏟아냈다. 블랙 팬더의 주류라 할 수 있는 오클랜드의 팬더들은 혁명 세력이 고립되지 않도록 광범위한 지지층을 획득해야 하는데, 웨더맨의 행동은 도리어 반대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으며, 톰 헤이든은 미국 혁명이 가능하려면 타자의 운동을 지지하는 운동 이상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제3세계 혁명 운동을 지지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놓는 웨더맨과 거리를 두었다. 이와 유사하게 『가디언』 그룹도 웨더맨이 미국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들을 지배 계급 편에 넣어 버렸다고 비판한다.<sup>26)</sup>

이러한 비판이 웨더맨의 이후 행보에 당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비판들은 당면 정세에 대한 판단, 혁명 전략, 조직 원리 등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도리어 이후 웨더맨의 행보, 즉 지하화를 추동한 것은 국가 기구의 억압이었다.

1969년 12월 4일, 시카고 경찰은 블랙 팬더인 마크 클라크와 프레드 햄튼이 사는 아파트를 급습해서 이 둘을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혁명 운동 진영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고, 복수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집회를 열고, 리플렛을 돌리고, 경찰차를 불태우는 것 말고 더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 이유는 가두 행동이 가지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1969년 12월 말에 미시건 주 플린트에서 SDS/ 웨더맨의 마지막 공개 집회가 열렸다. “SDS 전국 전쟁 평의회”라는 이름이 붙은 이 집회에는 300명 가량이 참가했다. 종이로 만든 커다란 기관총 모형, 혁명의 아이콘인 카스트로, 체 게바라, 호치민 등의 포스터, 얼마 전에 살해당한 블랙 팬더 지도자인 프레드 햄튼의 사진 등이 장식한 집회장의 분위기는 당시 이들의 지향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마크 러드가 『모비딕』을 빌어 개회사에서 말한 것처럼 커다란 하얀 고래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논의의 주된 쟁점은 즉각적인 무장 투쟁의 필요성과 그러한 폭력의 목표물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논의의 방향은 이 집회가 열리기 전에 발간된 「전국 전쟁 평의회」라는 글에서 나온 바 있었다. 이 글은 과거 방식의 투쟁은 승리할 수 없는 것이며, “권력에 대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해 때문에 행동과 의식의 수준을 높이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이 글은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어디에 권력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확정하

---

24) Shin'ya Ono, “A Weatherman: You Do Need A Weatherman To Know Which Way The Wind Blows” (*Leviathan*, December 1969), in Jacobs (ed.), *Weatherman*

25) Andrew Kopkind, “The Real SDS Stand Up” (*Hard Times*, October 20, 1969), in Jacobs (ed.), *Weatherman*, pp. 283-292; Eldridge Cleaver, “On Weatherman” (*The Berkeley Tribe*, November 7, 1969), in *ibid.*, pp. 293-295.

26) Ron Jacobs, *The Way the Wind Blew: A History of the Weather Underground* (1997), pp. 68, 71.

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국제적인 투쟁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다.<sup>27)</sup>

권력에 직접 맞서는 무장 투쟁이라는 결론은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화한 일종의 도시 게릴라로 스스로를 전화한 것은 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주된 정치적 이유는 다른 백인 운동권에 대한 포기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이들의 엘리트주의를 엿볼 수 있는데, 자신들만 흑인 투쟁 및 제3세계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유일한 예외적인 백인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제국에 맞서는 “새로운 야만인”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지하화의 또 다른 이유는 국가의 억압 때문이었다. 웨더맨의 주역 가운데 하나인 버나드 돈이 후일 말한 것처럼 법정 다툼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길 원치 않았고, 경찰과 FBI의 지속적인 감시와 협박에서 벗어나길 원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은 국내에 또 다른 전선을 열고자 했던 것이다.<sup>28)</sup>

플린트 집회 이후 웨더맨 분파는 지하화를 하나하나 준비했다. 간부진은 기존 조직 및 가족, 친지와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1970년 1월에는 시카고에 있는 SDS 전국 사무소 문을 공식적으로 닫았다. 이로써 SDS를 혁명적 대중 조직으로 전화한다는 계획도 포기되었고, 그 대신 웨더맨의 독자적인 혁명 조직을 건설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었다.<sup>29)</sup>

하지만 웨더맨의 전면적인 지하화는 그 해 3월에 있었던 예기치 못한 폭발 사고 때문이었다. 3월 7일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한 타운하우스에서 폭발이 일어나 세 명의 웨더맨 조직원인 다이애나 오튼, 테드 골드, 테리 로빈슨이 죽고, 두 명이 살아서 빠져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여기서 무장 투쟁에 쓸 폭탄을 만들고 있었는데, 사고로 폭탄이 터졌던 것이다. 이 사고로 에드거 후버가 “가장 폭력적이고, 완강하며, 사악한 혁명 집단”이라고 부른 웨더맨의 어떤 모습이 공개화되었고, 9명의 웨더맨 지도부에 대한 추적이 시작되었다.<sup>30)</sup>

하지만 모든 비극이 대개 그러하듯이, 이 폭발 사고로 웨더맨 내부도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사실 플린트에서 있었던 “전쟁 평의회”에서 웨더맨은 복수와 폭력, 무장 투쟁을 말하긴 했지만, 그것은 분명 절망과 분노 속에서 나온 과장된 언사였다. 하지만 이제 무장 투쟁은 머릿속의 추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피를 보는 것이었다. 폭탄을 만들다 터진 것은 실수이긴 했지만, 무장 투쟁의 하나의 귀결을 보여준 것 또한 사실이었던 것이다. 웨더맨 지도부는 이러한 사태를 인식하고, 재산만을 목표로 하는 무장 선전전이 적절한 투쟁 수준이라고 결정했다.

그렇지만 웨더맨은 스스로가 내린 정세 분석이 틀렸다고는 보지 않았다. 유색인 운동과 공동체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70년 4월 말에는 미국이 캄보디아 침공을 통해 베트남 전쟁을 더욱 확대했다. 이에 항의해 전국적인 저항 운동이 일어났고, ROTC 빌딩을 비롯한 전쟁 관련 기관에 대한 파괴가 잇달았다. 이 과정에서 오하이오의 켄트 스테이트 대학에서는 주 방위군의 발포로 네 명의 학생이 사망했고, 미시시피의 잭슨 스테이트 대학에서도 두 명의 흑인 학생이 사망했다. 이러한 때 유색인과 연대하면서 전쟁과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백인의 투쟁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었다.

이러한 판단을 가진 웨더 언더그라운드(조직의 명칭을 바꾸었다)는 뉴욕 타운하우스의 비극

27) SDS, “National War Council” (*Fire*, December 6, 1969), [www.antiauthoritarian.net/sds\\_wuo/fire](http://www.antiauthoritarian.net/sds_wuo/fire).

28) Ron Chepesiuk, *Sixties Radicals, Then and Now: Candid Conversations with Those Who Shaped the Era* (1995), p. 236.

29) Varon, *Bring the War Home*, p. 171.

30) Linda Evans, “Letter To the Movement”, in Jacobs (ed.), *Weatherman*, pp. 462-463.

을 뒤로 하고, 첫 번째 코뮌니케를 발표했다. “선전 포고”라는 제목을 가진 이 코뮌니케는 반문화를 혁명적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혁명적 폭력만이 이 체제를 개혁하려다 생긴 좌절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도”라고 말하고, “미국의 불의의 상징”을 공격할 것이라고 선언한다.<sup>31)</sup>

그 공격은 6월 10일 뉴욕 시 경찰 본부에 대한 것이었다. 백인 청년층과 유색인 공동체 모두에게 경찰은 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경찰서를 공격한 것은 인종주의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일이었다. 이를 통해 이후 7년 동안 계속될 웨더 언더그라운드의 무장 선전전이 시작되었다.

## 5. 맺음말

『포천』이 1968년 가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6만 이상의 대학생이 스스로를 혁명가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1970년에 갤럽이 실시한 유사한 조사에 따르면 44퍼센트가 사회변화를 위해서라면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답했으며, 1/3 이상이 스스로를 좌파 혹은 극좌파라고 말했다.<sup>32)</sup>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웨더맨 혹은 웨더 언더그라운드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미국과 전 세계의 청년층의 혁명적 열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탄생한 것이었다.<sup>33)</sup>

그런데 이러한 혁명적 열정의 에너지를 이룬 것은 미국 내의 흑인 해방 운동과 베트남 전쟁으로 드러난 제3세계 민족 해방 투쟁의 고양이었다. 미국적 이상과 미국적 현실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미국의 신좌파 운동은 블랙 파워와 베트남 전쟁의 확대 속에서 미국적 체제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옮겨 갔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를 분석하고, 바꿀 수 있는 혁명적 이론과 실천이 60년대 후반의 화두가 되었던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sup>34)</sup>

하지만 신좌파는 바로 그 체제에서 (백인의) 특권을 누리는 집단 출신이자 집단이었고, 이러한 위치가 인식의 변화의 기반을 이루었다. 이들의 혁명적 열정과 실천의 밑바탕에는 한편으로는 인종적 죄의식과 이를 벗어나기 위한 도덕적 책무가,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지적, 사회적 능력에 기초한 엘리트주의가 있었다. 흑인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을 전 세계적인 혁명 운동의 전위로 설정하면서도, 그들이 백인 신좌파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개량적이라고 생각하여 거부하는 에피소드는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sup>35)</sup>

그럼에도 빌 에이어스의 말처럼 “무엇을 한다 해도, 전쟁은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그 전쟁의 확대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좌절감을 간단히 무시해 버릴 일은 아니다.<sup>36)</sup> 이

31) Weather Underground, “Communique #1”, in Jacobs (ed.), *Weatherman*, pp. 509-511.

32) E. Morgan, *The Sixties Experience: Hard Lesson About Modern America* (1991), p. 91에서 인용.

33) 미국의 웨더 언더그라운드와 서독의 적군파를 비교 분석한 제레미 바론은 신좌파가 의식적으로 국제주의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무장 투쟁은 일탈이 아니라 미국과 서독의 신좌파 운동에 침윤되어 있던 이데올로기, 태도, 감수성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34) 댄 버거는 이런 맥락에서 연대의 정치라는 틀로 웨더 언더그라운드의 무장 투쟁을 이해하려고 한다. Dan Berger, *Outlaws of America: The Weather Underground and the Politics of Solidarity* (2006).

35) SDS를 중심으로 신좌파의 ‘실패’를 분석한 데이비드 바버는 인종, 젠더, 계급, 민족에 대한 전통적인 통념에서 신좌파가 벗어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신좌파는 60년대 운동의 주역이라기보다는 60년대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를 (불철저하게) 따라간 운동이었다.

36) Ron Chepesiuk, *Sixties Radicals*, p. 102.

좌절감 속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가 나왔고, 미국이 제국이라는 인식이 나왔으며, 현대 사회의 중심적인 문제가 백인의 특권이라는 인종 차별의 문제라는 이해가 나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웨더맨 혹은 웨더 언더그라운드의 형성은 SDS의 종말이나 60년대 운동의 일탈이 아니라 그것의 부정적 전환이었다.